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배포시	배포일시	2021. 8. 6.(금) 18:00
담당과장	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김승태 (044-215-2770)	담당자	이상홍 사무관 lsh0622@korea.kr 신기태 사무관 shinkt89@korea.kr

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

- 계란 가격 안정 방안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운영계획 논의 -

-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.6(금) 17:00 정부서울청사에서 「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」를 개최하여 ❶ 계란 가격 안정 방안과 ❷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운영계획을 논의하였음

※ 참석자 : 기재부 1차관(주재), 농식품부 차관, 공정위 부위원장,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, 축산물품질평가원

- AI로 인해 산란계 1,671만 마리가 살처분되었으나, 산란계 병아리가 2,638만 마리 입식되고 노계가 801만 마리 도태되어 6월말 기준 산란계수는 약 6,800만 마리(추정)로 평년수준(6,916만마리)에 근접

- 계란가격도 수입계란 공급확대 등 7월 중순 이후 완만히 하락

* 계란 가격(30개, 원) : (2.15)7,821<고점> (7.1)7,545 (7.15)7,546 (8.6)7,14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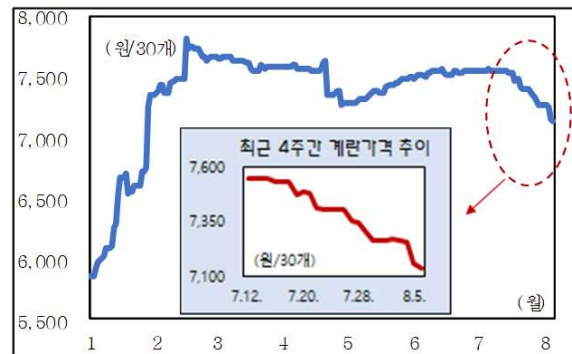
* 최근 계란가격 변동(30개, 원, 전일대비): (7.16)△15 (7.22)△65 (7.29)△35 (8.5)△99

산란계수 증감 동향

구 분		'21.3.1*	6.1*	6월말 추정치 (KRE)
사육 마릿수 (만마리)	'21년	6,211	6,587	6,823
	'20년	7,281	7,492	7,328
	평년	7,053	6,891	6,91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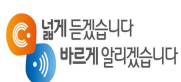
* 출처: 통계청 가축동향조사

최근 계란 소비자가격 동향



출처: aT

- 그러나, 계란가격이 여전히 7천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, 관계 부처가 함께 계란 가격이 조속히 6천원대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기로 하였음
 - 먼저 산란계수가 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하고,
 - 산란계 재입식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(150→350억원) 및 한시적(8~10월) 금리 인하(1.8→0%)를 추진
 - 또한, 계란수입을 지속(8,9월 각 1억개)하고, 수입계란 공급가격 1천원 인하(4→3천원, 8.5일~), 대형마트 등 소비자 직접 판매 비중 확대를 통해 수입계란의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
 - 아울러 공정위도 그간 계란가격 모니터링, 담합·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감시 및 법 위반행위 사전계도 등을 해왔음
 - 앞으로도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가격동향, 재고 증감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담합 징후 포착시 공정위 조사 추진
 - 산업부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현황파악 및 업계와의 협의를 담당하기로 함
- 아울러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은 계란가격안정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(총괄반장: 기재부 경제정책국장)을 구성·운영기로 하였음
 - * 구성: 기재부·농식품부·산업부·공정위, KREI(한국농촌경제연구원)·축평원·aT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)·농협 등
- 계란의 「생산-유통-판매」全 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현황 점검 및 대응을 위해 총괄반·생산점검반·유통점검반·판매점검반을 각각 운영하여,
- 주기적인 현장점검 실시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는 한편, 위법·부당행위를 단속하고, 현장 애로사항 등은 즉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계란수급안정을 위해 총력대응해나가겠음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